

한글 새소식

ISSN 1225-0538

535

2017. 3.

한글 새소식, 달마다 5일 펴냄/ 제535호(2017. 3. 5.)/ 1986년 6월 12일에 제3종 우편물 (나)급 인가 받음/ 펴낸 데 : 한글학회, 03175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7.



경기도 의왕시 갈미한글공원(사진: 임 찬유)

겨레와 함께 100년(1908-)



한글 학회

- 우리의 주장
1. 바르고 쉽고 고운 말을 가려 쓰자.
 2. 일상의 글자살이는 한글로만 하자.
 3. 한국말과 한글을 온 누리에 펼쳐자.

※ 한글 새소식에 실린 글의 내용은 우리 학회의 뜻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머리글	한글을 언어화한다 노마 히데키	2
우리말과 우리	남북한 화법의 차이 전정미	4
	한자말 쓰기보다는 새말 짓는 일에 힘써야 이강규	6
우리말 지킴이 초대석	바른 우리 말글 쓰기 한평생 남 영신 회장	8
한글과 우리	한문글자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김정섭	10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논란’, 중·고교 한자 교육으로 충분 구법회	12
	광화문에 한글 간판을 되찾아 주자 강효삼	13
한국어교육 이야기	한국어교육, 미래를 생각하다 이해영	14
	베트남 학생들의 한글 사랑 최홍길	15
	“니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김태진	16
책 소개	『애산여적』 제4집 발간에 즈음하여	17
눈길이 머무는 곳	더나더나 허병두	18
별들의 누리	통신언어에 대해 송인환	19
새소식	논문 발표회,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성명	21
알림	“우리말 · 우리글의 힘, 시민 강좌” 수강생 모집	23
학회 마당	분은 삭이고 밥은 삭히고/ 우리말 알아맞히기	24

누리집 : “한글학회” 또는 <http://www.hangeul.or.kr>

누리편지 : saesosik@hangeul.or.kr

한글 새소식, 1972년 8월 8일에 월간으로 등록(등록번호: 라1612) 발행인: 권 재일 주간: 성 기지 인쇄: 형설출판사 펴낸 데: 한글학회

주소: [03175] 서울시 중로구 새문안로3길 7 전화: (02)738-2236~7 전송: (02)738-2238 누리편지: webmaster@hangeul.or.kr

- 한글 새소식은 회비를 내신 한말글 문화협회 회원에게 보내 드립니다.
- 한말글 문화협회 회원이 되시려면, 회비(1년치 10,000원)를 국민은행 009-01-0428-355(예금주: 한글학회)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빈종이에 ① 우편번호와 주소 ②전화번호-일반, 휴대전화 ③이름 ④생년월일 ⑤직업-직장 등을 차례로 적음)를 한글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입회 신청서는 일반 우편(위의 주소), 전송, 누리편지 가운데 어느 하나로 보내시거나, 누리집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을 언어화한다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언어학자
일본 메이지쿠인대학 객원교수
hnoma@gen.meijigakuin.ac.jp

아득한 옛날, 문자란 언제나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문득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갑골에 새겨져 있거나 혹은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 사람은 문자의 기원을 알 수는 없었다. <쓰여진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알 길이 없었다. 다만 문자에는 형태가 있고 형태를 지탱하는 물리적인 신체, 즉 돌이나 나무, 종이와 같은 신체가 있으며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때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알 뿐이었다. 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것을 만든 것인지 끝내 알 수 없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 문자가 태어나면 그곳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쓰여진 언어>는 어떻게 그 형태가 성립되어 가는 것일까? 언어음이라는 신체로 태어나 음의 세계에서 실현되던 <말해진 언어>는 어떻게 하여 문자라는 신체로 다시 태어나 빛의 세계에서 <쓰여진 언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않의 양상은 어떻게 변용되는 것일까? 도대체 문자를 둘러싸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15세기 한국어권에 태어난 훈민정음=한글이야말로 그러한 <쓰여진 언어> <쓰기>의 기원을 알 수 있는, 희유한 문자체계이다.

훈민정음은 한국어의 하나의 음절을, 음의 평면에서 <초성자음+중성모음+중성자음+고저악센트>라는 네 가지 요소로 분석하여, 문자의 평면에서 그들 네 가지 요소에 각각 형태를 주어 종합한다는

사분법(tetrachotomy) 시스템의 문자체계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초성, 중성, 종성은 오늘날 언어학에서 말하는 분절음, 음의 고저=높낮이는 비분절음이다. 비분절적인 요소도 고스란히 방점으로 형태화하였다. 이 방점을 무언가 덤으로 붙인 것처럼, 이차적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본질적인 것을 못 보게 된다. 놀랍게도 문자의 창제자는 음의 세계에서 의미의 구별의 관여적인 모든 요소를, 빛의 세계에서 형태로서 만들었다. 그러한 사상의 핵심을 보아야 한다.

한국어는 음과 음의 충돌이 가져다주는 음운 변화가 아주 활발한 언어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음절을 어떻게 하나의 글자로 만들었는가라는 원리만 보고 끝낸다면, 실은 한글의 또 하나의 지적인 재미를 알 수 없다. “밤+이”를 모든 모어화자가 “밤-이”가 아니라 “바-미”라 발음한다는 것. 이렇듯 종성은 초성이 되어—예를 들면 음의 평면에서 일어나는 이 <중성의 초성화>라는 동적인 현상을(이것도 불어의 <연음>이라 부르는 현상과 혼동하기 쉽다.), 문자라는 정적인 평면에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한국어의 풍부한 음운론적인 동적 변용을 정적인 문자의 평면에서 해결하는 시스템 역시 한글은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문자는 그것이 곧 <쓰여진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자는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쓰여진 언어>가 아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큰 오해를 초래하게 된다. 음을 나타내는 문자를 만들었으니 이것으로 <쓰여진 언어>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아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선 쓰여야 한다. 문자는 혼자서라도 만들 수 있으나 그것이 <쓰여진 언어>가 되려면 사람들의 끊임없는 영위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써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문자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이다——사람은 말을 하는 것처럼 결코 쓰지 않으며 쓰는 것처럼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말해진 언어>에서 나의 말과 상대의 말이 동시에 겹쳐져서 실현될 수 있지만 그런 간단한 현상도 <쓰여진 언어>에서는 나타낼 수 없다. <말해진 언어>는 말하는이의 수만큼 발화의 띠가 나타날 수 있는 멀티 트랙이고 <쓰여진 언어>는 한 줄의 문자열만이 연이어 이어지는 싱글 트랙이기 때문이다. 그 양자의 존재양식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 한편 <쓰여진 언어>는 앞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을 수 있다. 즉 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읽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말해진 언어>는 한번 나타난 말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말해진 언어>는 음의 세계에 실현되고 <쓰여진 언어>는 빛의 세계에 시각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는 서로 경상(鏡像) 관계, 즉 거울에 비춘 관계와 같이 보이지만 기실 각각의 존재 양식의 좌표축 자체가 전혀 다른, 서로 위상을 달리하는 실현체인 것이다.

이렇듯 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진정 <쓰여진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즉 문자가 진정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상품이 화폐가 되는 것과 같은 <목숨을 건 비약>(salto mortale)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쓴 것일까? 그렇다. 글을 쓰고 책을 썼다. 삼라만상 모든 것을 쓰려고 하였다. 그럼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나간 것일까? 문체는? 사람들의 방대한 영위 끝에 오늘날의 한글로 <쓰여진 언어>가 존재한다. 훈민정음=한글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가 원리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양상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 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문자를, <쓰여진 언어>의 신체가 될 만한 문자를, 사람이 사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은 경탄할 만한 지적

인 영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즐겨 한글의 훌륭함을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과 같은 형용도 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런 형용은 의미가 없다. 그러한 형용은 우리의 사고를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문자체계는 스포츠도 아니고 화폐와 교환 가능한 상품도 아니다. 문자는 우리의 앎이나 감성을 형성하는 깊은 곳에 관여되는 것이며 우리가 앎이나 감성을 함께하기 위한 하나의 풍요로운 신체이기도 하다. 그 문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문자든 모든 문자가 가장 귀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한글을 그저 칭양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한 칭양의 근거가 되는 바를 가능한 극한까지 오늘날의 우리의 말로 어디까지나 이 지적으로 끈질기게 언어화하는 데에 있다. 물음을 세워 답을 형태로 만든다. 형태로 된 언어는 때와 함께 또 다시 바뀌 써지며 답이 바뀌어 가기도 할 것이다. 그것 또한 괜찮다. 무엇이 어떻게 훌륭한가? 무엇이 어떻게 재미있는가? 무엇이 어떻게 소중한가? 도대체 어떻게 비추면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는가? 문자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과 이어지는가? 세종대왕이 있고 정 인지가 있으며 최 만리가 있다. 주 시경이 있고 최 현배가 있었다. 문자를 둘러싸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왜 죽어야 했는가.

다시 말한다. 훈민정음=한글은 인류사에서 <쓰여진 언어> <쓰기>의 기원을 알 수 있는 희유한 문자체계이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 훈민정음=한글뿐만 아니라 <쓰여진 언어> <쓰기> 그리고 우리의 앎이나 감성이라는 보편적인 것을 둘러싸고 우리 하나 하나에게 다양하고 풍요로운 물음을 세우게끔 만든다. 그러한 물음들에 답을 주면서 인류사는 걸음 속에 늠름하게 서 있는 훈민정음=한글은 우리를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안아 주고 있다. 